

Weekly Brief
R&I trends in **Europe**

KERC R&I News

EU 연구혁신 정책 및 연구 동향

2023.10.04.

Content

▶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- ① 스페인 의장국, 유럽 연구 인프라 관련 테네리페 선언 발표(9.25)
- ② 집행위, 4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 수행 권고(10.3)
- ③ 범유럽 디지털 인프라 '암 이미지 유럽 플랫폼' 출시(9.29)
- ④ 영국-독일, 청정 수소 파트너십 발표(9.28)
- ⑤ 영국 대학, 영국의 HE 가입에 따른 참여 개선 활동 개시(9.28)
- ⑥ 유럽의원(MEP), '24년도 Horizon Europe 예산 증액 요구(10.3)

▶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

- ① 글로벌혁신지수(GII) 2023 공개 ... 대한민국 10위(9.27)
- ② 집행위, '디지털 10년' 정책 첫 현황 보고서 발간(9.27)
- ③ ERC 연구원 2명, 2023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(10.3)

▶ EU 연구성과

- ① (연구모음) 성공적인 전기자동차 전환을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 10개
- ② 과학에 대한 불신의 이유는? - 연구결과



1.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① 스페인 의장국, 유럽 연구 인프라 관련 테네리페 선언 발표(9.25)

○ 스페인 EU 이사회 의장국은 지난 9월 25일~26일 테네리페 과학 기술 공원에서 개최된 ‘연구 인프라의 글로벌 측면 및 지속가능성’ 컨퍼런스에서 유럽의 연구 인프라 보급을 개선하기 위한 ‘테네리페 선언’을 발표함

- 현재까지 총 14개국이 [동 선언문\(Tenerife Declaration on Global Dimension and Sustainability of Research Infrastructures\)](#)에 서명

○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선언문은 연구 인프라의 건설과 설계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
- 선언문은 유럽 전역에 걸쳐 보다 균형 잡히고 영토적으로 더 잘 분산된 연구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, 이를 위해 소규모 EU 국가의 참여 증대를 위한 국가 및 유럽 수준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

- 연구 인프라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보장
- 연구 인프라 내 경력 개발 및 기술 육성
- 유럽·국가·기관 수준에서 연구 인프라의 오픈 사이언스 정책·관행의 이행·통합
- 연구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도전과제를 평가하고 공동 문제에 대한 솔루션 탐색을 위한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 모색
- 국제 협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투자
- 유럽 연구 인프라와 세계 연구 인프라 간의 협력 촉진
- 과학 외교의 진전을 위한 연구 인프라의 역할 육성

-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이 선언을 준수할 예정이며,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이를 따를 것으로 전망

<출처: <https://www.iacses/en/outreach/news/iac-hosts-presentation-tenerife-declaration-improve-distribution-research-infrastructures-europe>>

2 집행위, 4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 수행 권고[10.3]

-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 첨단 반도체, 인공지능(AI), 양자, 생명공학 등 4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권고를 채택
 - **동 권고**는 EU의 경제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을 마련한 유럽 경제 안보 전략에 관한 공동 통신문에 따라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EU 회원국과의 추가 위험 평가를 위해 채택
 - ※ 지난 6월 20일 채택된 공동 통신문은 공급망 탄력성에 대한 위험, 중요 인프라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험,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과 관련된 위험, 경제적 의존성 또는 경제적 강압의 무기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여러 조치를 명시
- 동 권고는 **10가지 핵심 기술 분야**를 제시하며, 그중에서도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4가지 기술 분야를 식별

- (첨단 반도체 기술)마이크로 전자공학, 포토닉스, 고주파 칩, 반도체 제조 장비
 - (인공지능 기술)고성능 컴퓨팅,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, 데이터 분석, 컴퓨터 비전, 언어 처리, 객체 인식
 - (양자 기술)양자 컴퓨팅, 양자 암호화, 양자 통신, 양자 센싱 및 레이더
 - (생명공학 기술)유전자 변형 기술, 새로운 계놈 기술, 유전자 구동, 합성 생물학

 - ※ 제시된 나머지 6가지 핵심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음: 첨단 연결·네비게이션·디지털 기술, 우주·추진 기술, 에너지 기술, 로봇공학·자율주행 기술, 첨단 소재·제조·재활용 기술
 - 이러한 기술 분야는 급진적인 기술적·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성,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위험, 인권 침해 위험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
- 집행위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회원국과 협력하여 위에 언급된 네 가지 기술 영역에 대한 집단적 위험 평가를 개시할 예정
 -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집행위와 함께 올해 말까지 위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첫 집단적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
 - 권고에는 민간 부문의 협의 및 기밀 보호를 포함하여 집단적 위험 평가를 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 원칙이 포함

<출처: 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_23_4735>

3 범유럽 디지털 인프라 ‘암 이미지 유럽 플랫폼’ 출시[9.29]

○ EUCAIM 프로젝트는 ‘유럽 암 이미징 이니셔티브’ 하에 유럽 전역의 암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‘암 이미지 유럽 플랫폼’을 출시

※ EUCAIM: [European Federation for Cancer Images](https://eucaim.eu)

- ‘22년 12월에 출시된 ‘유럽 암 이미징 이니셔티브’는 암 연구, 치료 및 예방에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보급을 촉진하여 보다 정확하고 빠른 임상 의사 결정, 진단, 치료 및 예측 의학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플랫폼은 9가지 암 유형의 이미지로 구성된 36개 데이터 세트를 연결하여 2만 명으로부터 수집된 총 20만 개 이상의 이미지 시리즈를 제공함
- 이는 향후 10만 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수집된 6천만 개 이상의 익명화된 암 이미지 데이터로 ‘암 이미징 지도(Atlas of Cancer Imaging)’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유럽 암 이미징 이니셔티브는 [유럽 데이터 전략](#) 및 [유럽보건데이터 공간](#)에 따라 디지털 기술 혁신과 유럽 데이터 보호를 결합하여 연구 혁신가 및 의사가 귀중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함

<출처: <https://digital-strategy.ec.europa.eu/en/news/cancer-image-europe-platform-first-prototype-on-european-digital-infrastructure-goes-live>>

4 영국-독일, 청정 수소 파트너십 발표[9.28]

○ 영국과 독일은 넷제로(Net-zero) 연료로서의 수소 개발을 위한 협력과 소비자를 위한 수소 프로젝트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함

- 파트너십에는 안전 표준 및 규정 설정 주도,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의 연구혁신 지원, 무역 촉진, 공동 시장 분석 수행 등이 포함됨
- 독일 에너지부 장관은 “협력에는 수소와 그 파생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기술과 혁신에 대한 협력도 포함될 것”이라고 말함
- 영국 에너지 효율 및 녹색 금융 장관은 두 나라가 저탄소 수소 개발에 있어 당연한 파트너라고 밝히며, 이번 합의는 영국과 독일뿐만 아니라

국제 무역에서 수소 연료의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함
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이 수소를 수입하려는 바람이 파트너십의 주요 동인인 반면, 그 혜택은 연구혁신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전망

※ 산업 협회 Hydrogen Europe의 CEO인 Jorgo Chatzimarkakis는 특히 영국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협력이 유익할 수 있는 사례로 고체 산화물 전기분해 분야의 발전을 언급함

- 영-독 파트너십의 운영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, 이번 협정을 통해 두 정부는 협력 기회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며 파트너십 활동에 대한 연례 검토를 수행할 공동 실무 그룹을 구성할 예정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hydrogen/uk-and-germany-announce-clean-hydrogen-partnership>>

5 영국 대학, 영국의 HE 가입에 따른 참여 개선 활동 개시(9.28)

○ 영국의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합의됨에 따라 EU와 영국 파트너의 HE 협력 재개를 위해 로드쇼, 시드 펀드 및 고위급 방문 등 영국의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

- 영국과 EU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영국의 HE 준회원국 가입이 2년 반 동안 지연되며, HE 필라2에 대한 영국의 참여는 절반으로 감소함
- 이에 따라 영국 전역의 대학에서는 로드쇼, 회의 및 웨비나 등을 통해 영국과 EU 연구자들에게 참여 방법을 알리는 등 정보 공세를 펼치고 있음
-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EU 네트워크 통합을 위한 5천~1만 파운드의 소액 보조금을 제공하는 유럽 파트너 기금을 다시 개시하여 초기 경력 연구원들의 교환 방문이나 연구팀 구성에 자금을 지원함
- UCL에는 Horizon Europe 연구비를 담당하는 직원이 16명 이상 있으며, 이 팀은 지난 1년 반 동안 감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다른 EU 대학의 그랜트 사무소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
- 한편, 영국 대학들은 영국이 후속 프로그램인 FP10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보장을 원함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universities/uk-universities-rush-improve-horizon-europe-participation-after-association-deal>>

6 유럽의원(MEP), '24년도 Horizon Europe 예산 증액 요구(10.3)

-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가 제안한 '24년 예산에 1억 4천만 유로를 추가할 것을 요구
 - 유럽의회 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Horizon Europe에서 '우수'한 평가를 받은 많은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신청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내년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
 - 이들은 추가 자금을 필라2의 보건, 문화, 기후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필라1의 유럽연구위원회(ERC), 마리퀴리 프로그램(MSCA)에 사용하고자 함
 - 예산위원회는 또한 EU 이사회가 협상 입장에서 축소시킨 모든 부문에 대한 예산을 집행위의 원래 제안 수준으로 복원

<출처 : 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doceo/document/BUDG-PR-753546_EN.pdf>

2.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

1 글로벌혁신지수(GII) 2023 공개 ... 대한민국 10위(9.27)

- GII 2023에 따르면 스위스, 스웨덴, 미국, 영국,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국가로 선정됨
 - [GII 2023](#)은 80개 지표를 사용하여 130개 이상의 경제에서 글로벌 혁신 동향을 추적하였으며, 올해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느린 경제 회복, 높은 금리, 지정학적 갈등을 배경으로 함

1. 스위스(작년 1위)	6. 핀란드(9)	11. 프랑스(12)	16. 에스토니아(18)
2. 스웨덴(3)	7. 네덜란드(5)	12. 중국(11)	17. 홍콩(14)
3. 미국(2)	8. 독일(8)	13. 일본(13)	18. 오스트리아(17)
4. 영국(4)	9. 덴마크(10)	14. 이스라엘(16)	19. 노르웨이(22)
5. 싱가포르(7)	10. 대한민국(6)	15. 캐나다(15)	20. 아이슬란드(20)

- GII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
 - 과학출판물, 연구개발(R&D), 벤처 캐피탈(VC) 거래 건수 및 특허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
 - ※ 그러나 성장률은 '21년에 기록된 예외적인 증가보다 낮았음
 - R&D 지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업 지출은 '22년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
 - ※ R&D 지출은 '21년 15% 증가한 반면, '22년에는 약 7.4% 증가
 - 최근 인공지능의 급증과 함께 ICT 하드웨어 부문은 그래픽 카드와 칩 제조업체가 주도하며 '22년 가장 눈에 띄는 R&D 성장을 보임
 - ※ 팬데믹 기간 동안 R&D 지출을 삭감한 기타 부문(자동차, 여행, 레저 등)에서는 '22년에 들어서며 다시 강력한 투자가 이루어짐
 -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'22년 전 세계 정부 R&D 예산은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
 - ※ 일본과 한국에서는 상당한 증가가 있었고, 독일에서는 소규모 예산이 증가하는 등 다른 국가의 예산 삭감을 상쇄함
 - 정보기술(IT), 보건 및 에너지 분야의 지표는 계속해서 진전을 보임
 - 전기 자동차, 암 치료 등 일부 기술에 대한 보급률은 여전히 낮으나 전반적으로 기술 채택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

<출처 : https://www.wipo.int/pressroom/en/articles/2023/article_0011.html>

2 집행위, '디지털 10년' 정책 첫 현황 보고서 발간(9.27)

- '디지털 10년(Digital Decade)' 현황 보고서는 EU의 디지털 2030 목표 관련 성과와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제시하고 권장사항을 통해 향후 방향을 제시
 - [이 첫 연례 보고서](#)는 회원국들에게 현재의 투자 격차를 해소하고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디지털 10년 정책 프로그램(DDPP)의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촉구함
 - ※ DDPP는 '23년 1월 9일 발효됨
 - 보고서 채택 후 2개월 이내에 집행위와 회원국은 보고서에 담긴 권장 사항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
 - ※ 정책 진행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례 보고서 또는 [팩트시트\(요약본\)](#) 참조
- <출처 : 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_23_4619>

3 ERC 연구원 2명, 2023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(10.3)

- ERC 수혜자인 페렌크 크라우스와 앤 윌리애가 '23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며, ERC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총 14명으로 늘어남
 - (Anne L'Huillier) 앤 윌리애는 스웨덴-프랑스 물리학자이자 스웨덴 룬드 대학교 원자물리학 교수로, 지난 15년 동안 3개의 ERC Advanced('08, '13, '19) 보조금과 3개의 추가 보조금인 Proof of Concept('13, '17, '23)를 통해 총 710만 유로 상당의 지원을 받음
 - 윌리애의 교수는 원자 시스템 내 전자의 역학에 대한 [이해를 발전](#)시켜 초고속 레이저 기술 분야의 더 많은 과학적 상업적 기회를 열었으며, 현재는 짧고 강렬한 레이저 펄스와 원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고 있음
 - (Ferenc Krausz) 크라우스는 막스 플랑크 양자광학 연구소와 독일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의 헝가리-오스트리아 물리학자로 '09년에 "원자 및 아원자 규모의 기본 프로세스에 대한 4D 이미징"에 관한 5년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250만 유로 규모의 ERC Advanced 보조금을 받음
 - 크라우스의 연구팀은 최초로 아토초 광 펄스를 생성하고 측정하였으며, 이를 사용하여 원자 내부의 전자 움직임을 포착하였음
 - ※ 위 두 ERC 수혜자는 [Wolf Prize를 함께 수상](#)하였으며, 이전에도 여러 EU 지원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음
- <출처 : <https://erc.europa.eu/news-events/news/2023-Nobel-physics-prize>>

3. EU 주요 연구성과

1 [연구모음] 성공적인 전기자동차 전환을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 10개

- EU는 보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, 이를 위해 운송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혁명을 선도할 준비를 하고 있음
 - 탄소 배출이 적거나 배출이 전혀 없는 이동성을 향한 전환은 유럽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임
 - 유럽에서만 운송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음
 - 운송 차량의 전기화는 유럽의 친환경 정책 목표에 따라 유럽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함
 - 전기자동차는 유럽이 기존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나,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성능, 경제성, 충전 인프라 등 전기자동차의 도입을 막는 주요 장벽들을 제거해야 할 것임
- 동 연구 모음집은 전기자동차(EV) 활용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EU 지원 프로젝트 10개를 소개함
 - 이는 최신 연구혁신은 물론 e-모빌리티와 관련된 개발 및 응용 사례를 선보이는 등 친환경적인 운송 부문을 향한 명확한 궤적을 제시함

<p>DEFACTO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V 배터리와 관련된 문제로는 긴 충전 시간, 제한된 주행 거리, 높은 비용 등이 있음 •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밀도를 향상하고 제조 공정을 간소화하여 배터리 팩의 현재 비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둠 	<p>펀딩 : Societal Challenges 기간 : 2020.01.01.~2023.12.31. 예산 : 약 600만 유로 (EU 지원 100%) 총괄 : Fundacion Cidetec (스페인)</p>
<p>SAFELiMOVE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리튬이온 배터리는 EV 기술의 핵심 • 이 프로젝트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해결하여 EV 성능을 개선하고 EV 배터리 공급망에서 유럽의 입지를 강화할 혁신적인 배터리를 설계함 	<p>펀딩 : Industrial Leadership 기간 : 2020.01.01.~2023.12.31. 예산 : 약 788만 유로 (EU 지원 약 787만 유로) 총괄 : CIC Energigune Fundazioa (스페인)</p>

<p>MODALIS2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 셀 생성에 새로운 재료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링 도구 체인 개발 	<p>펀딩 : Societal Challenges 기간 : 2022.01.01.~2023.08.31. 예산 : 약 484만 유로 (EU 지원 100%) 총괄 : IFP Energies nouvelles (프랑스)</p>
<p>COBRA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재 EV 배터리의 많은 단점을 극복하는 코발트 프리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을 개발 	<p>펀딩 : Societal Challenges 기간 : 2020.01.01.~2024.06.30. 예산 : 약 1,186만 유로 (EU 지원 100%) 총괄 : Fundacio Institut de Recerca de l'Energia de Catalunya (스페인)</p>
<p>FITGEN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향상된 EV 성능과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새로운 구성부품, 시스템 및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프로토타입화 함 	<p>펀딩 : Societal Challenges 기간 : 2019.01.01.~2022.09.30. 예산 : 약 584만 유로 (EU 지원 약 500만 유로) 총괄 : AIT GmbH (오스트리아)</p>
<p>URBANIZED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파워트레인, 화물 본체, 차량 관리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도시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도입 	<p>펀딩 : Societal Challenges 기간 : 2021.01.01.~2023.12.31. 예산 : 약 648만 유로 (EU 지원 약 512만 유로) 총괄 : Ildiada Automotive Technology SA (스페인)</p>
<p>EVC1000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EV 주행거리를 늘리고 차량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혁신적인 부품을 개발 	<p>펀딩 : Societal Challenges 기간 : 2019.01.01.~2022.06.30. 예산 : 약 677만 유로 (EU 지원 약 515만 유로) 총괄 : AVL LIST GMBH (오스트리아)</p>
<p>INCIT-EV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첨단 신경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모바일 센서 장비를 통해 추론된 사용자 선호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충전 기술을 개발 	<p>펀딩 : Societal Challenges 기간 : 2022.01.01.~2024.06.30. 예산 : 약 1,800만 유로 (EU 지원 약 1,500만 유로) 총괄 : Fundacion Circe Centro de Investigacion de Recursos Y Consumos Energeticos (스페인)</p>
<p>UPSCALE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뮬레이션된 안전 및 성능 테스트 속도를 향상하는 AI 소프트웨어를 설계 	<p>펀딩 : Societal Challenges 기간 : 2018.11.01.~2022.04.30. 예산 : 약 400만 유로 (EU 지원 100%) 총괄 : Ildiada Automotive Technology SA (스페인)</p>
<p>Multi-Moby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클라우드 데이터와 차량-사물 연결을 활용한 능동 안전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둠 	<p>펀딩 : Societal Challenges 기간 : 2020.12.01.~2023.11.30. 예산 : 약 777만 유로 (EU 지원 약 573만 유로) 총괄 : Infineon Technologies Austria AG (오스트리아)</p>

<출처 : <https://cordis.europa.eu/article/id/443730-enabling-a-successful-transition-towards-electric-powered-road-transport>>

2 과학에 대한 불신의 이유는? - 연구결과

- EU의 PSYDISC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회의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의 정치적 신념, 종교, 영성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
 - 연구팀은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 가지 과학 분야의 발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
- 연구자들은 네덜란드의 614명을 대상으로 인간 게놈 편집, 나노기술 및 인공지능(AI)에 대한 의견을 조사
 - ※ 이들의 연구 결과는 [‘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’ 저널에 게재](#) 됨
 - 연구팀은 정치적, 종교적 신념의 영향을 넘어 영성이 미친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함

- 서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성(뉴에이지 또는 포스트기독교 영성)은 종교적, 과학적 권위의 원천을 무시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일련의 신념과 관행
 - 자신을 영적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방법에 대한 신뢰보다 지식의 원천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등 과학과 기술의 특정 영역에 대한 회의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
- 일반적으로 [영적인 사람들은 과학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](#) 것으로 나타남
 - 정치적 이념과 종교성은 일반적으로 나노기술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
 - 반면, 영성, 도덕적 관심,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 등 사람의 세계관이나 신념의 다른 측면이 (회의론에) 더 큰 역할을 하였음
 - 종교인 역시 인간 게놈 편집과 나노기술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유전자 조작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
 - 그러나 정치적 이념은 과학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회의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 - “개인의 종교, 영성 및 자연을 보는 방식은 과학 혁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사람들이 특정 형태의 과학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종교적 신념과 영적 신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” (공동연구저자, Bastiaan Rutjens 박사)

- [PSYDISC 프로젝트](#)는 특히 영성이 상승하고 종교가 쇠퇴하고 있는 서유럽에서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는 세계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

PSYDISC Developing and Testing the Psychological Distance to Science Model	펀딩 : ERC 기간 : 2020.02.01.~2025.01.31. 예산 : 약 150만 유로 (EU 지원 100%) 총괄 : Universiteit van Amsterdam(네덜란드)
---	--

<출처 : <https://cordis.europa.eu/article/id/446711-why-such-distrust-in-science>>